

철학사

72 기타 현상학자들

휘튼 대학의 아서 홈즈 박사 저

3시간 후 시험은 평소와 같은 규칙에 따라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작 시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 너머로 시험지를 읽으려 하지 않도록 규칙의 취지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다루는 마지막 날입니다 . 시험 범위에는 사르트르 까지 포함됩니다 . 선택 사항으로 월요일 저녁 7시에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팬찮으신가요? 아무 때나 상관없나요? 만약 안 되신다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쯤 사무실에 들리주세요. 화요일 오전에는 아마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 외에 다른 최근 현상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언급하고 싶은 두 사람은 사르트르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인물들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은 프랑스의 가톨릭 철학자로, 제가 종교적 실존주의자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존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 때문에 스스로를 '존재의 철학자'라고 칭하며 그 의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인간관계의 현상학, 희망의 현상학, 흥미로운 주제인 희망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체 안에 있는 것' 사이의 변증법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비판한다 . 끊임없이 서로를 부정하고 소외시키는, 즉 지속적인 부정 의 개념은 부정과 단순한 단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거스르거나 극복하려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멀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변증법이 과장되고, 결과적으로 그림이 왜곡됩니다. 그의 요점은 어떤 관계에서든 가능한 두 가지 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외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두 극 사이에서 관계는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지만 , 전적으로 소외되거나 격렬한 대립으로 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마르셀은 좀 더 긍정적인 묘사를 제시하며, 제가 말했듯이 좀 더 낙관적인 실존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는 이 운동에 대한 미국의 역사학자인 제임스 콜린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워싱턴 대학교, 아니,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사르트르가 존재 방식에는 부르주아와 비부르주아,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방식만 있다고 가정한 것을 비판합니다.

제임스 콜린스는 이 가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술적으로 볼 때, 존재 방식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런 식의 비판이 있습니다. 사르트르 이후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 된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가장 뛰어난 프랑스 철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아를 오직 의도성으로만 보는 칸트의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후설이 제시한 의식의 의도성에 대한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당신이 읽고 있는 책, 『자아의 초월』에서 초월적인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아를 단지 내가 의도성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축소 시킵니다 .

메를로-퐁티는 바로 그 점을 부정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어-목적어 관계에서 주어라는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어가 없으면 목적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현상학적 관점에서, 그는 적어도 어떤 개인적 정체성, 즉 단순히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인적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객체 관계의 다른 측면들, 특히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볼 때 지각, 즉 지각의 현상학에 대해 더 면밀한 현상학적 고찰을 시도합니다. 그는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제목 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살아있는 몸'이라고 알려진 것은 신체적 경험입니다. 사르트르가 '살아있는 경험', 즉 '살아있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살아있는 경험', '살아있는 것을 통해'라는 뜻이죠 . 메를로퐁티가 주장하려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 구체적인 경험이 바로 살아있는 신체적 경험 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과 자아의 본질에 관해 더 많은 것이 있더라도, 적어도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살아있는 몸은 영원한 정체성을 지닌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단순히 의도성이라는 행위로 환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 모리스 메를로퐁티

프랑스 사상의 선두주자인 메를로퐁티의 뒤를 이어 70년대, 그리고 아마 80년대까지도 폴 리쾨르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계시고 은퇴하셨는데, 지금쯤 80세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프랑스 개신교 개혁주의 전통의 사상가이시죠. 그는 현상학적 해석학 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

다시 말해, 그는 단순히 존재 철학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는 실존적 문제들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실존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학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석학, 즉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죄책감의 현상학은 어떨까요? 이는 도덕적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중요할 것입니다. 언어의 현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측면, 즉 언어, 자유에 대한 감각, 죄책감, 유한성에 대한 감각 등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측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죄책감에 대한 비판이 그 예입니다.

언어에 대한 드 소쉬르와 같은 구조주의자들, 그리고 단순히 인위적인 구조를 덧씌운 것에 대해 이야기한 폴 리콰르. 그리고 폴 틸리히를 언급하고 싶은데, 앞의 세 사람과는 어떤 순서도 없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신학을 접근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소책자를 썼는데, 이 책은 그가 궁극적인 관심사라고 부르는 믿음에 대한 현상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행위는 온 존재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중심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앙 현상학에 관해서는, 매우 유익하고 깨달음을 주는 연구 분야입니다. 그는 『존재할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도 신앙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종류의 용기와 대비되는 실존적 용기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경 구절이 전혀 없는 유일한 신학"이라고 평한 그의 방대한 3권짜리 조직신학 저서를 보면, 그는 인간 조건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을 통해 실존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독교 사상의 유산을 이러한 실존적 질문들에 적용합니다.

그는 그것을 그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변증적이라는 것은 물론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건 현상학적 설명이죠. 그리고 그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처럼 하이데거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이데거식 현상학으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실존적 조건이 궁극적인 관심사라면, 신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의 대상입니다. 현상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궁극적인 관심사에서 의도성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의 주장은 종교적 경험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현상학적으로 묘사된 종교적 경험은 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주장은 종교적 의식의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톨리히의 작업, 가다머의 작업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현대 해석학 사상의 주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다머 이후가 아니라 가다머 이전까지의 해석학 발전 과정을 알고 싶으시다면, 리처드 파머의 저서 『해석학』을 참고해 보세요.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파머 교수는 일리노이주 남부에 있는 맥머레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술라이어마허 같은 옛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까지의 해석학 이론 발전을 추적하는 좋은 책입니다. 가다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와 함께했던 브루스 벤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독일에서 가다머와 함께 박사 논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머는 이제 그런 종류의 연구조차 넘어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상학적 해석학은 어떻습니까? 자, 생각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서는 당연히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객관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물리적 대상 뿐 아니라 텍스트, 기록물,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의 객관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해석이란 순전히 객관적인 활동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귀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칸트와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당연히 우리가 무엇이든 읽고 해석할 때 우리만의 틀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칸트의 뒤를 잇는 첫걸음은 헤겔 시대의 독일 관념론자 중 한 명이었던 쉘라이어마허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프리드리히 쉘라이어마허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주관적인 틀을 적용하는 만큼, 저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 그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아니라 저자 자신의 주관적인 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쉘라이어마허에게 있어 모든 해석, 모든 해석학의 기능은 저자가 쓴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는 의도성, 즉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가리키고 있는 것, 나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쉘라이어마허는 일원론적 이상주의자로서, 모든 개인 안에 내재된 하나의 전체 창조 정신, 즉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성한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주의적 신학,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절대자처럼 만물을 관통하는 창조적인 신성한 정신이 바로 작가의 의도, 작가의 주관성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신성한 정신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글에는 영감의 원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서적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말이죠. 어쨌든 그는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 즉 주관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저자의 의도'라는 표현은 문맥에서 벗어나 종종 계몽주의적 해석가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많이 들리는데, 그들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저자가 자신의 언어를 통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즉 언어가 의미하는 바,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쉘라이어마허가 말하는 '의도성'과는 다릅니다. 쉘라이어마허의 의도성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물이 전개되는 데 있어 훨씬 더 포괄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이는 쉘라이어마허가 제시한 '저자의 의도'라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쉘라이어마허는 앞서 말했듯이 오로지 작가의 주관성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이상주의적 성향 때문입니다. 작가의 무의식적인 의도가 매우 자주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후설의 의도성론입니다. 즉, 읽거나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행위, 즉 제가 하는 일은 거기에 제 의미를 부여하고 저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인 거죠. 주관성이 , 독자의 주관성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이해란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 즉 설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란 결국 제 주관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나의 의도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데거는 어떤 객관적인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대한 해석학, 즉 나의 설계에 대한 해석학을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주관적인 의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작가와 해석자 모두에게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주관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

그러면 해석은 마치 인간관계의 역동성과 매우 유사해집니다. '나와 너'의 관계처럼,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사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이해를 이루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다머가 제안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는 쌍방향입니다.

이는 두 주관성 , 두 지평, 혹은 두 관점 사이의 만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은 자신의 주관적인 틀, 즉 그가 말하는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전 이해, 다시 말해 주관적인 틀이 바로 사전 이해인 거죠.

때때로 그것은 '편견'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자를 잘못 쓰거나 번역가가 하이픈 없이 'prejudice'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란 결국 선입견이 아니겠습니까? 선입견이란 결국 주관적인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선입견, 즉 말하는 내용에 대한 선입견을 텍스트에 적용하고, 텍스트와의 대화, 다시 말해 작가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질문이 재구성되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도 수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가 계속될수록 두 가지 관점은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면 텍스트는 질문에 답하고 또 질문을 바꾸고, 나는 다시 질문을 던지고 텍스트는 또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와 함께 살아가고 상호작용하면서 역사적 간극은 좁아지고 두 지평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인간관계의 방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 누군가의 생각이나 입장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답변을 듣고 다시 "그럼, 이런 뜻인가요?"라고 묻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아, 그렇군요. 이런 뜻이시군요?"라고 묻게 되는 거죠. "음,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면서 서로의 관점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두 주체가 공동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그 전통이 공동된 언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연결고리를 통해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효과적인 역사', 즉 효과적인 역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독자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해석자가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려는 텍스트를 '나를 위한' 방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자체에 이미 내재된 '나를 위한' 접근 방식이 생겨나는 거죠. 당신은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의 언어, 즉 '나에게 사물'과 '사물 그 자체'라는 칸트적 토대를 가진 언어는 결국 또 다른 표상적 인식론을 가장한 것에 불과한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현상학적 전통에서 의도성은 대상의 존재를 부여하고, 대상이 우리에게 현존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대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학은 순진한 실재론도 아니고 반실재론도 아닌, 일종의 비판적 실재론에 가깝습니다.

비판적 실재론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수정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말하자면, 무오류의 해석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가다머 이후 해석학 이론이 발전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크 데리다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해체주의자인 자크 데리다는 반실재론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

그래서 텍스트는 어떤 확정적인 의미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난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데리다에 따르면, 사용된 언어에는 작가가 부여한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는 무의식적으로 부여된 것이며, 결코 완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어는 사물에 인위적으로 부여된 구조라는 생각입니다. 해체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그 구조를 해체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어떤 해석을 하든, 무엇을 지칭해야 하는지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어떤 해석이나 구성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해석은 작가가 사용한 언어가 인위적으로 덧씌워진 것만큼이나 인위적인 덧씌움입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화는 유용하다. 그러나 언어의 정확한 지칭 대상이 무엇인지는 이성적인 수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는 해석에 대해 반실재론적이며 , 실질적으로 해석의 다원성이 정당하고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전체 다원성에 대한 상대주의를 표방한다.

이제, 그러한 해체주의가 특정 텍스트의 해석뿐 아니라 종교 현상의 이해에도 적용되는 한 ,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교 다원주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종교 전통의 다원성에 대한 상대주의는, 우리가 그 위에 씌우는 구조가 주관적인 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칸트-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의도성 개념을 거쳐 해체주의로 발전한 이 유럽 전통은 비록 유럽 전통이지만, 영미 철학에서도 계승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듀이의 맥락에서 언급했던 리처드 로티의 저서 『철학과 자연의 거울』은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전통뿐 아니라 듀이의 실용주의적 전통, 그리고 몇 주 후에 살펴볼 비트겐슈타인의 전통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들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인 주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진실 에 도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책 제목, 『철학과 자연의 거울』에서 '자연의 거울'은 표상적 인식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는 거울상과 같은 심상들이 존재하며, 이 심상들은 실제 사물의 복제본, 진정한 복제본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가 하고 있는 건 칸트에서 비롯된 주관주의 전통, 그리고 듀이 같은 사람들의 도구주의적, 현상주의적 전통에 반박하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아시다시피, 둘 다 반실재론자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건 그런 실재적인 거울상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건 본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지식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해왔던 것과 같습니다. 즉,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회의론자가 되겠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흥미로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버지니아 의 융합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철학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라면, 그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요점은, 그가 예전부터 해오던 수법, 즉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회의론자라고 말하는 방식은 부당한 논리합에 호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는 분류법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언제나 확률론적 전통이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현대 인식론은 믿음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저 두 가지 전통 외에도 다른 전통들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과장된 인식론적 기대에서 비롯된 회의주의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 철학 강좌를 수강하는 신입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약 그들이 당신이 이것저것을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기대한다면,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완전히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로티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지만, 적어도 확신을 추구하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딜레마의 양극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제3의 대안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잠시 멈추죠. 질문이나 의견, 토론 있으신가요? 네? 데리다의 언어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예시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구조인가요? 음,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돌아가 보면, 보통 프랑스 학자 소쉬르가 거론되는데

, 저는 그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19세기와 20세기 실증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세기에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언어 분석에서 그들은 언어의 두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실적 참조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형식적 구조입니다. 형식적 구조란 주어-술어 구조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네, 형식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언어가 기능하는 규칙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둘을 분리하면서, 의미는 형식 구조에 의해 전달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해체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체계 전체에 도전하고, 그 체계 전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언어 구조라는 말이 제가 말하려던 영어 같은 논리적 언어의 형식적인 구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철학 텍스트나 문학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언어, 즉 단어들이 조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면, 그 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구조화예요. 이야기의 구조화죠. 이야기 자체와는 별개로, 설명의 구조화 말이에요.

이런 식이죠. 구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의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 어떤 해석도 말로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해석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야기의 각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시 겠죠? 어떤 해석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각 부분을 일관성 있게 이해시켜주죠. 그래서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이름 붙여진 겁니다.

언어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고르기아스를 기억하시나요? 그 소피스트는요? 고르기아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도 말할 수 없어. 회의주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 아는 것 자체에까지, 그리고 어떤 언어의 존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존재한다. 언어적 회의주의 말이지 .

그리고 이것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가의 의도와 이론 모두에 관련된 것인가요? 네. 비판적 실재론이라는 용어가 현재 시점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열흘 정도 더 지나면 완성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 가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토마스 리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리드는 사물의 존재에 대해 실재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떤 사물의 존재를 즉각적으로 인식하며, 그 인식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자명해지며,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정한 감각적 특성들과 함께 주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존재를 추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마음과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대상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는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호들, 감각적 자극들 등을 성찰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적 실재론. 대상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 태도입니다.

비판적 실재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철학 운동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1920년대와 30년대 스코틀랜드 실재론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언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작가가 당신이 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내가 쓴 글에서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를 본 적 있어? 문학 선생님이 늘 글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렇지 않아? 사람들이 내 글에 대한 서평을 쓰는 걸 보면 항상 바로잡아주고 싶은데, 이제는 포기했어.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들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가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 제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문자로 전달한 경우가 있거든요.

무의식이 있었던 걸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정말로 내 말을 이해하는 걸까? 그런 식으로 논쟁이 흘러가겠지. 아, 그거에 대해 좀 설명해 줄래? 내가 그쪽은 잘 몰라서 . 맞아, 엘리너 스템프.

해석의 여러 단계를 구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녀는 단순한 비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읽다 보면 작가가 꼭 그런 의도로 쓴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 어떤 구절이 여러 층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상의 사례로 요나서를 생각해 보면, 요나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든 안 하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다가 앗수르 백성에게 멸망당한 사건에 대한 비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런 수준의 이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시도했듯이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해 되시죠? 세 가지 의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녀에게 그 내용을 읽어주지는 마세요. 그녀가 신이 당신에게 한 번 의미를 계시해 준다고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제 기억에 가장 두드러지는 그녀의 활동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신론적 해석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물론 그녀가 문자 그대로 '이신론자'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 해석가들이 해석을 전적으로 인간적이고 합리적이며 거의 기계적인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신론자처럼 행동한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신이 법을 제정하고 우리에게 그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맡겨둔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고정된 법칙을 믿는다는 거죠. 일종의 이신론적 해석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녀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이 해석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유신론적인 해석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엄격한 기계적 해석 법칙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의미를 보여주고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적어도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신입 성경 공부'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의미를 공유하죠. 물론 그녀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녀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네,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그냥 전통적인 수표로 충분한지 궁금해요. 아마 그녀는 제일 먼저 텍스트 자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텍스트 자체'라고 한다면, 텍스트를 다루는 데 적절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텍스트에 대한 충실함과 텍스트 사용을 통해 발전해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도 해석과 적용 사이의 오래된 구분을 거부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가다머는 해석과 적용 사이의 어떤 이분법, 즉 완전한 단절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란 텍스트를 나에게 맞는 텍스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 행위 자체가 이미 적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또 다른 점은 교회의 역사가 신학적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신학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시도, 즉 칼케돈 공의회 교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3세기, 4세기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속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안셀무스의 『예의 바른 인간』이 그 예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교 개혁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보시 다시피, 신학의 역사에서 이해는 점차 발전해 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확해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바는 아마도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 역사에서도 그러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발전을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돌리는 것처럼, 성경 구절 해석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봄방학 동안 저는 테네시 주의 한 대학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제게 박사 학위 논문 사본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은 복음서 중 한 구절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정한 신학적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해석 방법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사실, 논문의 상당 부분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구절의 해석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는 해석의 역사와 그 다양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다양한 의미 수준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서 한 번의 회의에서 모두 논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트로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세 당사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가, 단어, 주제, 그리고 읽기. 가다머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역사적 공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의 구조적 공백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언어의 다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다리의 일부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죠.

그러면 다리는 더 좁아지겠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통점 덕분에 일종의 문화 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다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언어적, 문화적 전통 안에서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전통 안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언어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폴 리코르는 비슷한 맥락에서 텍스트 자체를 특히 강조합니다.

훨씬 더 강하게요. 제 생각엔 리코르 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 메모를 좀 확인해 볼게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어딘가에. 어디로 갔을까? 뭐, 어쨌든.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에 ED 허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도 텍스트를 중시하는 분이셨죠. 참고로, 그분은 몇 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 『문화적 소양』을 쓴 히르슈 씨입니다.

그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다양한 고전 작품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해석은 텍스트 자체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연결 고리는 텍스트입니다.

, 말하자면 주어와 객체, 즉 작가가 텍스트 안에서 만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요.

리콰르 와 히르쉬는 텍스트 중심적인 반면, 가다머는 의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석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집니다.